

아시아 건화물선 운임선물시장 성장잠재력 지대

건화물선 운임선물 시장규모 200억달러에 달해

아시아지역의 건화물선 운임선물 시장에 대한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철광석, 석탄, 곡물을 포함한 건화물선 운임선물 시장의 규모는 2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아직까지는 현물시장의 규모가 운임선물 시장의 규모보다 2배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선물시장의 규모가 현물시장보다 몇 배 이상으로 크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운임선물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상당하지만,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위험회피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인 선행조건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운임선물의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위험관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콩의 노블 차터링(Noble Chartering)사의 라구나트(Ragunath) 사장에 따르면 아시아 시장의 유동성 부족문제가 새로운 시장 참가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운임선물 시장의 25%를, 유럽이 70%, 그리고 미국이 5%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에는 아시아가 10%를 차지하는데 그쳤는데, 점차 그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앞으로 중국 제철회사, 일본 및 한국 해운회사, 호주 1차 상품 거래회사, 인도 해운 및 무역회사들이 운임선물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도는 다른 산업분야에서 선물시장이 발달되어 운임선물시장 활성화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한 중국 제철소들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준비를 보다 확실한 후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선박펀드 KG, 투자범위 다양화

최근 독일의 KG 금융사가 해외 진출 및 실물 투자의 다양화를 통해 수익성 창출에 나서고 있다.

최근 호주에서 상품 출시를 성공적으로 마친 KG 금융사인 HCI 캐피탈(Capital)의 경우 헝가리 시장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헝가리 개인 투자자들은 7월1일부터 선박투자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 예정인 Shipping Select XVII 펀드는 5척의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컨테이너선 1척, 다목적선 1척, 2중 선체 유조선 1척, 건화물선 2척 등이다.

HCI의 랄프 프리드리히(Dr Ralf Friedrichs) 이사는 중·동유럽은 HCI가 시장확대를 노리는 주요 지역이라고 밝혀 향후 추가 시장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HCI 캐피탈 등을 포함한 KG 펀드 운용사들이 최근 시황 하락 등으로 선박투자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점차 줄어들어 항만투자(port investment)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HCI 캐피탈의 하랄드 크리스트(Harald Christ)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시기를 언급할 수는 없으나 관련 금융사들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KG 시장을 통해 주로 컨테이너선, 유조선, 건화물선 등에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NSC라는 선사에 의해 3척의 자동치운 반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선박은 크로아티아의 3 Maj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2008년 STX Panocean에 용선, 인도될 것으로 알려졌다.